

풀잎 약재 강세 속 전반적 상보합세 오가피, 산수유 시세 폭락 두드러져

국산, 수입 할 것 없이 한 약재 시세가 전반적인 오름세 경향을 띄고 있다. 경기 부진으로 매기가 없어 시세가 하락세를 보일 법 하지만 오히려 계속된 한약시장의 경기침체가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산한약재 생산량이 갈수록 감소해 물동량이 많지 않은 영향인 듯. 수입약재는 국산약재의 상보합세 경향에 덩달아 오름세 보이고 있는 상황. 특히 풀잎 약재들의 물동량이 절대적으로 부족, 상보합세 경향이 뚜렷하고 지난해 풍작을 이룬 산수유 시세가 지난해 비 절반 값으로 폭락한 것이 두드러진 현상이다.

인진이나 익모초 등 풀잎 약재들의 경우 질 좋은 상품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품이 시세를 형성하고있고, 햇것이 본격적으로 출하돼 나올 시기인 6,7월 이전까지 강세행렬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국 국산 감국의 물동량이 귀해 시세도 상보합세를 이루고 있다. 4월 초 서울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기준) 감국 시세는 보통 1만2천원에서 1만6천원 선에 거래되기도 하지만 상품의 경우 1만8천원에도 구하기 어려운 반면, 하품은 근당 1만원, 또는 9천원이라도 팔아달라는 요청이 있지만 상품성이 떨어져 매매가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

구기자 물량이 그리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경기 없어 시세가 다소 하락세 보이고 있는 품목. 청양산은 근당(6백g기준) 1만5천~1만7천원, 진도산은 1만8천5백원선이 4월 초 현재 서울약령시장 안에서 거래되는 도매시세다. 진도 산지농협에서는 근당 2만원선에 출하하고 있다고. 구기자 햇것 출하가 시작되기 전까지 시세는 당분간 보합세 전망되고 있다.

당귀 4월 초 현재 약령시장 안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토당귀 통자가 4천3백~4천8백원, 토당귀 절품은 근당 5천~5천5백원선으로 지난해 연말에 비해 약 3백~5백원

폭으로 올랐다. 일당귀도 다소 올라 지난해말 5천5백원 하던 통자가 6천5백원, 6천5백원 선이던 절품 일당귀는 7천5백원으로 올랐다.

독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던 독활 시세가 다소 하락세. 4월 초 현재 서울약령시장 안에서 거래되는 독활 근당(6백g기준) 시세는 상품이 근당 5천5백원, 중품이 4천원 선에 도매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말 상품 6천3백원, 중품 5천5백원 시세보다 1천5백원 폭으로 떨어진 시세다.

맥문동 지난해 수확량 감소 영향으로 지속적인 상보합세를 유지했던 맥문동이 다소 시세변동이 예상되는 시기는 햇것 출하가 이어질 이달 20일경부터다. 4월 초 현재 서울약령시장안에서의 맥문동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청양산 거삼(大)이 1만2천5백원, 중품이 9천5백원 선으로 보합세. 밀양산도 1만4천원(大), 1만1천원(中) 선으로 역시 상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맥백은 근당 8천원선. 오는 이달 20일경부터 밀양산을 시작으로 이달 말 경엔 청양산도 출하돼 나올 예정이어서 햇것 출하와 함께 시세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국산한약재 시세의 전반적인 오름세 영향을 받아 지속적인 상보합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레 접쳐지고 있다.

산약 시세가 지난해 비라있는 상황. 지방에서 일명 '바람잡이' 들에 의해 산약 시세가 근당(6백g기준) 1만원선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오를것에 대비 물건을 안내놓게 되고 더 오르려는 상인들의 심리가 수요를 불러 산약 시세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4월 초 현재 서울약령시장 안에서 거래되는 산약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9천원(상품), 7천5백원(중품), 6천5백원(하품) 선으로 지난해 말 보다 1천원~1천5백원 폭으로 오른 시세다. 껍질을 벗기지 않고 그냥 말린 일명 '피산약'은 근당 4

천원에서 4천5백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오가피 오가피는 최근 3~4년 전부터 볼기 시작한 마스크업 열풍을 타고 너도나도 오가피 재배에 손을 대면서 전국적으로 과잉재배 되기 시작했으나 그 열풍이 이제 시들해진 최근, 시세도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려가고 있다. 만병통치약처럼 언론에 띄워지면서 오가피가 한창 주가를 올릴3,4년 전엔 시장에서 오가피를 없어서 못팔 정도, 시세도 원오가피가 근당(6백g기준) 1만5천원, 막오가피도 3천5백원에서 4천원선을 형성했으나, 4월 초 현재 서울약령시장 안에서 거래되는 원오가피 근당 도매시세는 절반값인 8천원 선. 지방에서는 근당 6천~6천5백원 시세면 구매가 가능할 만큼 폭락했다. 오가피목은 건조 절단해서 kg당 1천원 미만이면 거래 가능하고, 약간 덜 말린 상태의 통자는 kg당 500원 시세정도가 고작이다. 과잉재배된 원오가피 보다 막오가피 시세는 오히려 보합세.

지실 4월 초 현재 서울약령시장 안에서 거래되는 애지실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1만원, 소지실은 9천원,

중지실은 6천원선으로, 물량이 없다보니 시세만 보합세 이루고 있는 상황이나 햇것 출하가 시작될 다음달 5월이면 애지실의 실 시세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애지실 시세가 이처럼 상보합세를 형성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해 5월 애지실 수확기에 상인들이 수매가격을 근당 5천원으로 너무 후려치는 바람에 농가에서 수확작업을 포기함으로써 지난해 물량이 많지 않았던 탓이라는 분석이다. 수확기에 접어들면 애지실 시세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긴 하지만 수매가를 너무 바닥세로 형성시켰다가는 하반기 다시금 시세 폭등과 물량부족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함이 요구된다.

우슬 4월 초 현재 서울약령시장 안에서 거래되는 국산 도매시세는 근당(6백g기준) 5천3백원 선으로 지난해 연말 5천원 보다 오름세를 형성하고 있으나 최근 국산과 비슷한 매지의 수입 우슬이 들어오면서 시세 주춤한 상태. 통자는 근당 4천5백원에서 5천원 선까지 보합세 이루고 있으나 절품 우슬은 수입과 섞인 물동량 영향으로 다소 주춤한 상태 근당 5천3백원 이하로도 거래되고 있는 상황. 국산 우

슬 잘 말려 정선된 상품(上品)은 근당 5천5백원선에도 거래된다.

천궁 좋은 물건은 물론이고 전체 물동량이 별로 없어 정확한 시세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산지 몇몇 상인들이 물건을 내놓지 않고 있고 묵은 것만 소량 유통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천궁값이 근당 2천4,5백원선으로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바닥세를 형성하자 생산농가에서 채종도 하지 않고 다 베어내 버리는 바람에 내년엔 사실상 심을 종자가 귀한 실정이라고. 그래서 일천궁을 보유하고 있는 산지에서는 올해보다 내년을 바라보고 물건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다. 4월 초 현재 일천궁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4천원선으로 아직은 큰 폭으로 오름세 보이고 있지 않은 상태이나 조만간 5~6천원, 종자가 없어 파종면적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엔 근당 7,8천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향유 여름약인 향유는 지금부터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 4월 초 현재 서울약령시장 안에서의 도매거래시세는 근당(6백g기준) 2천원 선으로 지난해 말 1천8백원 시세보다 1,2백원 오름세 보이고 있으며, 상보합세를 유지했던 택사시세가 거품이 빠지면서 내림세. 근당(6백g기준) 2천8백원선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엔 근당 3천원(통), 3천7백원(절)선으로 다소 회복세다.

(문정희)

중국약재 시장동향

적작약 소포 상승

○...적작약 가격이 약간 상승했다. 며칠동안 가격이 바닥세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산지의 채굴이 소홀해진 가운데 시장에 물량이 줄면서 1.17\$까지 상승했다. 분반기 좋은 품질은 2.62\$선이며, 보통품은 2.50\$선으로 전보다 0.44-0.56\$정도 상승했다.

초과, 수확량 감소 소비량 증가

○...초과는 작년 가뭄으로 수확량이 감소했으며, 올해는 주산지인 운남 마관지역의 기온이 내려가 묘를 잃어버렸다. 게다가 최근 몇 년 사이 초과에 대한 식품용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인기가 높아졌다. 산지가격은 0.47\$정도 상승하여 시장 가격은 3.89\$선을 형성하고 있다.

생지황 모종 가격 상승

○...생지황 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내면서 생지황 모종도 가격이 상승했다. 3월 말 최근 가격은 0.77\$선을 이루고 있

며, 원지는 물량이 적어 보합세. 시장에서 일급 원지의 가격은 9.03-9.76\$선이며 물량이 부족해져서 시세는 여전히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맥문동, 천궁 상승세

○...호북산 맥문동 햇것의 가격이 초기에는 하락했으나 생산시기 중반을 지나면서 가격이 상승중이며, 사천 맥문동 산지의 수매가 활발하다. 사천산지에서는 85%건조된 것이 2.56\$선이며, 호북 산지에서는 95%건조된 것이 2.80\$선이다. 이밖에 천궁산지에서의 천궁 가격은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저령은 시장 유입되는 양이 적다. 황련은 시세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

황기 수출 활발

○...황기는 최근 한국으로부터의 수요가 많아 수출이 활발한 편. 같은은 종전에 중국에서 사용하던 분갈근을 못쓰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재갈근 값이 자연 상승세다.

(Chinaherb21)